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이여 부디 눈을 돌려주소

출판메세나 발흥을 기대하며

정연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희한한 민족이었다.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짓밟혔어도, 절대로 망가지거나 허물어지지 않는 정신문화를 이어온 민족이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념전쟁(理念戰爭)을 치르고,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민족. 일본의 독물은 이빨에 물려 식민지 백성으로 묶여 있던 우리는 해방직후, 90퍼센트 이상의 문맹률에 묶여 있었다. 해방 직후 우리의 GNP는 60달러 남짓.

그 막막하던 현실을 딛고 불과 40여 년 만에, 우리민족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88올림픽과, “대~한민국!”의 외침을 전 세계에 메아리치게 만든 월드컵 경기를 거뜬하게 치러 낸 민족이었다. 한강의 기적, 눈부신 경제발전. 자원(資源)이라고는 없는 땅에서 오로지 두뇌와 열정, 기술과 노력만으로 50여 년 만에 GNP 1만 달러로 올려 세웠다. 눈부신 수출 실적 위에 대학진학률 세계 2위, 여성의 대학진학률 세계 2위에 올라 섰었다.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 하나에 6,000억~7,000억 원이 드는 경기장을 열여섯인가를 삼시간에 지어낸 실력이 과시되었었다. 8강 4강을 응원하기 위하여, 누구의 지시 없이도 수십만 명이 모여 세계를 뜨겁게 달게 만든 응집력도 보여주었었다.

그렇게 치달던 우리가 이제 맞닥뜨린 것은, 사교육비 몇십 조, 공교육도 길을 잃고, 정치가들의 끝없는 도둑질과 거짓말, 술 소비량은 전 세계 1위, 청소년 흡연을 세계 1위를 기록, 날로 늘어나는 범죄율과, 예절도 상식도 전통도 가치관도 찾아보기 힘든 어지러운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만들어 쓰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과학적 문자로 인정받는 한글을 쓰고 있는 나라. 8만 자에 이르는 중국의 한자가 800여 종류의 발음으로 언어 사용을 하고 있고, 72자의 일본 글자가 125개의 발음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24자의 한글로 무려 2,700여 종류의 발음이 가능한 놀라운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한 백성이 되고 말았는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책을 읽지 않는 백성, 역사의식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종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잠깐 떠돌다 마는 입소문처럼 휴지가 되고 마는 현실에, 출판사와 서점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허무하게 도산하고 있지 않은가.

문학 독자가 감소되는 것은 한국만은 아니다. 미국도 30년 전에 비해 문학독자수가 30퍼센트나 줄었고 그 추세가 계속되면서, 문학시장의 잠재 독자 수요가 2,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와 함께 ‘집중력 있는 독자와 상상력의 성장이 지체되는 국가적 위기’ 임을 발표했다.

현대인은, TV, 비디오 취미, 전자오락 탐닉, 상품광고의 홍수, 폭력영화, 섹스물 범람 등 디지털 시대의 통제 불가능한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정돈된 사고력과 자연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던 의식(意識)을 잃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익사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조건을 속도(速度)나 풍요, 편리에 두는 한 문학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문학작품이 시들어 죽는다면 인류도 미래를 약속받을 수 없는 것.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영혼의 양식(糧食)거리를 목숨 걸고 찾아야 한다. 2천여 년, 나라도 없고 국토도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엿하게 살아남아,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보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쓰인 성서(聖書) 한 권의 위력임을 알아야 한다. 성서의 시편(詩篇)을 능가하는 문학이 있는가. 그들의 토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양식이었고 신약성경은 인류역사의 숨결이었다.

우리의 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 우리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영혼의 양식이 될 작품이 돈으로 쓰인 예는 없었다. 작가의 작업은 골방에서 스스로에게 승부를 거는 고독한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 조류에 휩쓸려가면서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냉소로 쳐 쳐 두고, 작가나 시인은 어릿광대만큼도 눈여기지 않게 되었다. 돈으로 작품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잃는다면 설 자리가 없지 않은가.

문학지(文學誌)가 몇 있으나 작가들의 수요에 비하여 발표 지면은 형편없다. 협회에서 문학지를 만들어 회원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원고료로는 원고지 한 장에 3,000 원도 안 되는 구슬픈 현실. 그나마 잡지 제작비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받아보는 책값도 안 되는 연회비 10만 원도 버거워서 납부를 못 하는 회원이 태반이다. 협회운영비는 간 데 없고, 진흥원에서 보태주는 행사비라는 것도 눈물겨운 것. 어떻게 하다가 문인들이 이렇게까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천대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다 못해 기업들은 각기 야구며 농구 등 구단(球團)을 만들어 선수들을 키우고, 공연장도 만들어 각가지 공연을 유치하면서도, 문화의 근본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 앞에 서 있다. 환경문제며 민생, 국가간의 갈등 등 민족이 의연한 자세로 스스로를 지키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 앞에 서 있다. 전 세계가 무너져 가고 땅이 꺼진다 해도 영혼을 정금같이 갈고 닦는 문인들이 쓴 작품을 읽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라도 민족도 인류도 멸망의 길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 경기장 공사비의 몇천 분의 1, 아니면 기업들이 구단을 키우는 비용 중에 몇백분의 1이라도 문학을 가꾸는 일에 관심 가져 준다면, 우리나라의 문학풍토는 완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할 자리는 도덕성을 지향하는 정신뿐이다.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하는 '만인(滿人)을 위한 만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도 오직 정신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길만이 첩경이 될 것이다. **한문**

이 글을 쓴 정연희는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나 숙명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이대 국문과 3년 재학중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하고, 세계일보 기자, 경향신문 순회특파원을 역임했으며 조선일보 순회특파원 재직 시엔 '우정의 순회대사 세계와의 약속'란 고정란에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의 대담을 시리즈로 연재한 바 있다. 저서로는 《석녀》 《내진이 넘치나이다》 《양화진》 《난지도》 《시베리아 눈물의 낙원》 《언니의 방》 외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 '주부편지'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다.